

인공지능에 자산관리·투자자문 받아볼까

국내에서 인공지능(AI)이 투자자문과 자산운용을 해주는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본격 시작된다.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이 기업의 채용 서류 평가를 담당하고 전문의도 진단하기 어려운 특수질환명을 알아내 환자의 목숨을 구하는 등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런 인공지능에 급속한 발전에 대해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금융권에도 인공지능 바람=지난 31일 금융위원회는 내달 중순부터 6개월간 테스트베드(시험공간)에 참여하는 업체의 로보어디바이저(Robo-advisor·RA)에 대한 안정성 테스트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RA가 직접 자문과 일인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를 기반으로 한 RA가 금융위 테스트를 통과하면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고객자산을 굴러주게 된다.

RA가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결합증권, 주식 등이다. 대기성 자문에 한해 예금과 환매조건부채권(RP)을 운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카드업계도 인공지능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한카드는 최근 카드업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고객의 '소비 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FAN)페이봇'을 출시했다.

기존의 소비관리 서비스는 단순하게 업종별로 소비 내역을 분류했지만, 페이봇은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고 싶은 비용 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데이트'라는 단어만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영화관·패밀리레스토랑·놀이공원 등을 이 항목으로 자동 분류해 고객이 쉽게 소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고객이 비용 항목별로 예산을 설정하면 예산 대비 지출 정도를 매일 확인

내년 국내 서비스 개시... '소비 비서' 역할 카드 앱도 채용 때 기업 대신 서류평가 등 AI 활용 범위 무한대



할 수 있다.

내달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이 분석을 정교화하는 학습 과정을 거쳐 연내에 전체 고객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하나카드는 하나금융그룹 정보기술(IT) 서비스 전문 기업 하나아이엔에스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지난 19일 금융분야 인공지능 서비스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TRI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상담 서비스나 콜센터 상담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서비스를 도입하고, 전문적인 자산관리 영역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면접도, 진료도 대신 해주는 인공지능=일본에서는 통신·전자기기 종합회사 NEC가 사람 대신 입사시험 서류전형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이미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발된 NEC의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과거 입사시험을 치른 2000여 명의 이력서 데이터와 합격·불합격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이 어떤 인재를 채용했는지를 학습, 회사 채용방침에 맞는 지원자를 선별하는 방식이다.

또 도쿄대 의과대학연구소와 미국 IBM 등이 협력해 인공지능을 갖춘 '왓슨'에 의료를 학습하게 한 뒤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시행했는데, 전문의조차 진단하기 어려운 특수 질환명을 알아내 환자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다.

연구소 측은 지난해 1월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60대 환자 유전자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입력, 분석작업을 벌였다. 10여분 뒤 이 여성의 병명이 '2차성 백

혈병'이라는 또 다른 질환에 가까우며 기존에 투여하던 항암제를 변경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호시 신이치 문학상에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문학상 1차 심사를 통과하기도 했다.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작'의 영역마저 인공지능의 손길이 뻗은 것이다. 국내에서는 작곡을 하는 인공지능도 개발된 바 있다.

◇인공지능의 위험 현실화 될까=이처럼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등장하던 인간과 기계의 대결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이 벌써 의학과 기상, 법률상담 등 고차원적 분야에서 인간의 일 일부를 대체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인간보다 더 똑똑한 로봇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국내 주요 직업 406개 중 콘크리트공, 정육·도축원, 고무·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정원경찰, 조세 행정 사무원 등이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 권위자 스텠티어 러셀 미국 UC버클리대 교수도 기계가 인간보다 똑똑해질 것을 우려했다. 그는 "오류가 발생해도 강제 종료나 재부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영국의 우주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단계가 왔을 때 그들이 우리 인류와 같은 목표를 지니고 있을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인공지능 로봇의 반란 가능성을 경고했다.

다만, 현재까지 인공지능 특정 과업을 완성하는 것까지 기술이 발전해 위협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양면성'을 제대로 파악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백기용기자 pboxer@연합뉴스



자율주행 신기하네 지난 3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6 스마트자동차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가상현실로 자율주행 차량을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양 닮은 별'에서 온 독특한 신호

러시아 포착...외계인 여부 연구

외계인 흔적을 확인하는 러시아 전파 망원경이 예상치 못한 신호를 포착했다. 영국 가디언이 지난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소속으로 켈렌 축스카야 천문대에 있는 전파망원경 라 자리에 있는 HD164595에서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강한 신호'를 받았다.

HD164595는 지구에서 약 95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별로, 크기가 태양의 99%에 달하는 등 태양과 유사한 점이 많아 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 천문학자들은 이 신호가 외계 생명체가 보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 1년 동안 신호를 분석해왔다. 신호의 존재는 지난 1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달 27일 열린 외계 생물체에 관한 회의에서 한 이탈리아 과학자가 처음 언급하면서 알려졌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는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외계지적생명체탐사(SETI)에

도 신호에 관해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SETI의 과학자인 세스 쇼스타크는 "러시아가 이런 신호를 포착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밝혔다.

쇼스타크는 신호가 외계인이 보낸 것일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기대를 부풀렸다.

하지만 그는 라탄-600이 지구를 포함 한 다양한 행성에서 전파를 수신하고 있기 때문에 발신처가 외계 문명체인지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학자들은 이 신호가 '중력렌즈 현상'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력렌즈 현상은 별과 관측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천체가 지나갈 때 이 천체의 중력 때문에 별빛이 휘어져 원래 밝기보다 더 밝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과학자들은 외계 문명체가 존재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추가로 신호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호는 다음 달 27일 열리는 국제 우주회의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개인정보 유출 신고 늦으면 벌금 3000만원

사업자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사업자가 사태를 알게 된 지 24시간 이내에 당국 신고와 사용자 고지를 해야 한다는 '대응 매뉴얼'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1일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 유출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및 사용자 고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에 대한 준

수 절차 안내가 부족해 직장 신고·고지가 적잖았다.

올해 5월 일어난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실제 사업자가 해킹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같은 해 7월 초였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신고와 사용자 고지는 10여 일 뒤에 이뤄져 일부 논란이 있었다.

매뉴얼은 사업자가 유출 사실을 알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확인된 사항을 신고하고 사용자 통지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용자 통지는 전화·문자·이메일·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써서 효과적으로 유출 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실제 사용자가 잘 볼 수 없는 경로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는 '요식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24시간 이내 신고·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이용자에게 알리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매뉴얼을 참고하여 사업자마다 자체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하게 해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미국, 드론 운영 규정 발표

1년 내 60만대 떠다닌다

미국에서 지난 29일(현지시간) 상업용 드론(무인기) 운영 규정이 정식 발표되면서 향후 1년 사이 드론 60만 대 이상이 운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엔서니 포스 연방 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업용 드론 운영 규정이 정식 발표됐다고 전하면서 "미국 교통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했다고 공영 라디오방송 NPR이 보도했다. 연방 항공청이 지난 2년간 치열한 논의 끝에 내놓은 상업용 드론 운행 규정이 발표되자 상업용 드론 허가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연합뉴스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땅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루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시세 - 33억원
- 매매 - 상담 후 결정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단기투자 최고지역!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

곡성, 농가 전원 주택

- 곡성군 입면 송전리 233-6번지
- 대지 72평, 건물 28평(실평), 텃밭
- 1층, 2012년 준공, 시멘트 벽돌조
- 광주에서 25분, 금호타이어에서 1분
- 시세 8천만원, 매매 5200만원

청풍동, 임야

- 북구 청풍동 산272번지
- 2339평, 신촌마을 부근
- 인근까지 차량통행 가능
- 시세 3천만원
- 매매 - 1500만원

나주, 세지면 임야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산 12-4번지
- 89평, 2차선 간선도로에 접함
- 현재 밭으로 이용 중, 세지 복초 인근
- 시세 1천만원
- 매매 - 330만원
- 급매 (9월 5일까지)

싸고 좋은 물건, 회사 사정상 매매합니다! 회사직거래 / H.010-3605-5000

장성, 전원주택지

- 동화면 남산리 1073-7번지
- 대지 128평, 계획관리지역, 코너
- 36세대 중 20세대 거주 중
- 시세 1억, 주변환경 깨끗
- 매매 - 7200만원

나주, 근린주택

- 공산면 금곡리 877-2번지
- 1층, 대지 42평, 건물 43평
- 농협건너편, 2차 대로에 접함
- 시세 8천만원, 위치 좋음
- 매매 - 5200만원

장성, 서삼면 농지

- 서삼면 장산리 691-1번지
- 333평, 코너, 교통최고 요지
- 생산관리지역, 축령산 5분
- 시세 1억 3천만원,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9900만원
- 전원주택, 펜션 최고 장소